

미국 대선 사전투표 열기...6천만명 육박

2016년 전체 기록 뛰어넘어 대선 투표율 역대 최고 가능성 민주 사전·공화 현장투표 강제 트럼프 '조기 승리 선언' 우려



미국의 대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도입한 뉴욕의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24일(현지시간) 유권자들이 투표 차례를 기다리며 몇 블록에 걸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미국의 다른 주에 비해 사전투표 도입이 늦은 뉴욕에서는 작년에 주의회가 사전투표를 승인함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25일(현지시간) 9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4년 전인 2016년 대선 당시 전체 기록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사전투표 열풍이 고조되는데 따른 것으로, 특히 사전투표에 참여한 신규 유권자 및 기존 투표 무관심층의 비율이 높아 역대 미 대선 사상 전체 투표율에서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사전투표 수는 5860만표로, 지난 2016년 우편투표 또는 조기 현장투표 수인 5800만표를 넘어섰다. 대규모 주(州)들이 조기 현장투표 일정을 시작한 것이 최근 며칠 사이 투표수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 대선의 투표 방법은 크게 우편투표,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뉜다. 사전 투표는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투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우위를 계속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이 그 격차를 좁히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민주당 등록자들이 전체 집계 투표 수의 51%를 차지

25%를 기록한 공화당과 큰 차이를 보였으나 며칠 사이 민주당 51%, 공화당 31%로 표 차이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조기 현장투표의 개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많은 이들이 '우편투표 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신호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사전투표 집계는 어느 정당이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표는 아니다. 해당 유권자들의 정당 등록 현황만

들어있고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록자 수의 우위는 공화당 입장에서 플로리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를 중심으로 선거전 막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 공화당은 대선 당일 날 현장투표에 각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투표 집계를 토대로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선거 승리를 선언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북부 '러스트 벨트'(쇠락한 제조업지대) 경합주들의 경우 사전투표 집계가 곧바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선벨트' 경합주들의 경우 선거일 이전에 우편투표 개표에 대비한 작업을 허용, 일반 현장투표와 마찬가지로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 결과가 선거당일 밤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54> 징기스칸

징기스칸(成吉思汗, 1162~1227)은 몽고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정복자다. 묘호는 태조이며 본명은 보르지긴 테무진이다.

부친 예수계이와 모친 홀룬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어렸을 때 부친이 타타르족에게 목살되어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갔다. 케레이트족 은 칸의 도움으로 점차 세력을 키웠다. 1189년 몽골씨족연합의 맹주로 추대되었다. (제1차 즉위). 1201년 라이벌인 자무카를 격파해 속적 타이위드족을 멸망시켰다. 1202년 타타르족, 1203년 케레이트족을 격파해 중부 몽고의 패권을 장악했다. 1205년 나이만 족을 섬멸해 몽고 초원을 통일했다. 1206년 오논강변에서 부족 집회(쿠릴타이)를 개최하여

력 10만명을 넘었다. 서경(현 대동) 공격 중에는 금군이 쓴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해 철수하기도 했다.

금 조정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장종의 이복동생이 즉위하니 선종이다. 1213년 몽고군은 산둥반도를 유린했고 대부부의 허복 지방이 몽고군의 휘하에 들어갔다. 선종은 수도를 남경(현 개봉)으로 천도했다. 1214년 징기스칸은 재차 남하해 연경을 포위했다. 1년여의 공격 끝에 왕궁을 모두 파괴했다. 이때 기용한 아홉조제는 일대의 영재였다. 징기스칸은 말년에 후계자인 오고타이에게 "아홉조제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 앞으로 국정은 무엇이든 그와 상의토록 하라"고 명하였다.

1216년 징기스칸은 서방 정벌에 본격적으로 나설 결심을 하였다. 호라즘 왕국으로 간 사절단이 살해당한 사건

몽고 제국 건설한 위대한 정복자

은 정벌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측근인 무홀리에게 금나라 정복을 명하였다. 태행산맥(太行山脈) 이남을 무홀리가 담당토록 하였다. 그러나 무홀리는 1223년 사망하고 금나라 멸망은 11년 후인 1234년에 이루어졌다.

금나라 공략 중에 공성법(攻城法)을 습득하였다. 성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돌을 쏠 수 있는 대포가 필요하다는 작전에 따라 포병대를 조직했다. 몽고군 포병대의 효시다. 서방 원정에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했음은 물론이다.

징기스칸이 서방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투항한 금의 장군 괄보옥의 건의 때문이다. 괄보옥은 말하기를 "중원의 세력은 거대하므로 단시일내에 정벌할 수 없습니다. 서방의 소국들을 병합해서 아군으로 흡수하면 금나라 정벌에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서역 정벌에서 많은 기술자와 장인을 포로로 획득해 귀국했다.

1226년 금 정벌에 앞서 서하 공략에 나섰다. 현 영하 회족자치구내의 육반산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몸져눅던 말이오라고 일갈했다. 태조 6년(1211) 징기스칸은 진정에 나서 야고경한 부상이 악화되었다. 장티푸스 감염설도 제기된다. 1227년 7월 사망했다. 위성틴 포스트는 지난 천년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징기스칸을 선정한 바 있다.

몽고 제국의 대간으로 즉위했다.(제2차 즉위) 종래의 씨족 중심 공동체를 해체하고 군정일체의 조직으로 바꾸었다. 천호(千戶)를 95개 편성해 좌익·중익·우익의 만호장이 통솔토록 하였다. 1210년 금나라에 대한 조공 관계를 단절하고 주중 관계를 청산하였다. 1209년 서하를 공격해 복속시켰다. 만리장성을 넘어서 금나라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했다. 1214년 금의 연경(현 베이징)을 점령하고 아홉조제(耶律楚才)를 발탁했다. 호라즘 왕국과의 국교 수립을 위해 파견한 사절단이 오트랄성에서 살해되자 1219년 서방 원정에 나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복속시켰다. 서하에 출병해 하서 지방을 공략하는 도중 1227년 66세로 병사했다.

금나라 칙사가 새로운 황제 즉위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징기스칸을 예방했다. "새 황제가 누구요?"라는 징기스칸의 물음에 위왕(衛王)이라고 칙사가 답하자 징기스칸은 몸을 휩 돌리면서 "중원의 황제는 하늘이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 그런 바보같은 인간이 황제가 된단 말이오"라고 일갈했다. 태조 6년(1211) 징기스칸은 진정에 나서 야고경한 부상이 악화되었다. 장티푸스 감염설도 제기된다. 1227년 7월 사망했다. 위성틴 포스트는 지난 천년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징기스칸을 선정한 바 있다.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자"

현지 시민단체

집회·음악회 잇따라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현지 시민들의 집회와 현장 음악회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현지 시민사회에 따르면 시민단체 '오마스 게겐 레히츠' 회원 10여명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베를린 미테구(區)의 거리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구경 측의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장년 여성들이 주축으로 수십 개의 지부를 갖춘 전국적인 조직으로 극우세력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베를린 시민과 교민들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여오고 있다.

교민 연주자들도 소녀상 앞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소녀상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 21일에는 테너 목진학과 황성훈, 베이스 황인수, 키보드 문은선 등이 음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소녀상의 설립 취지를 알렸다. 22일에는 핸드팬 연주자 진성은과 가야금 연주자 박현정의 공연이, 23일에는 테너 이주혁과 홀블트대환경공학 박사과정인 정호승 등의 공연이 열렸다. 24일에는 정은비와 살레 레비어의 공연이 이어졌다.

소녀상은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설치됐으나 일본 정부의 반발 속에서 미테구청이 태도를 돌린 변경해 지난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의 현지 시민사회 및 교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미테구청은 철거를 유보했다. /연합뉴스

전세계 코로나19 2차 대유행 '폭풍'

미 신규확진 역대최대

스페인·이탈리아 다시 봉쇄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역대 최고 속도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 19 2차 확산 태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이틀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 의료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섰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부는 강력한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근 이틀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로 늘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4일 7만9852명, 23일 8만4244명으로 이틀간 평균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환자

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가 됐고,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틀 들어 미국 50개 주중 29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역대 최대 신규 환자 발생 주에는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항배를 결정할 오하이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곳도 포함된다.

코로나 19 폭풍에 휘말린 유럽의 상황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최근 24시간 신규 확진자가 5만2010명 늘어 24일의 역대 최대 기록인 4만5422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코로나 19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부는 '봉쇄' 조처로 바이러스 확산 제동에 나섰다. 스페인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경계령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1차 봉쇄 이후 7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작名명

광화문父子작명가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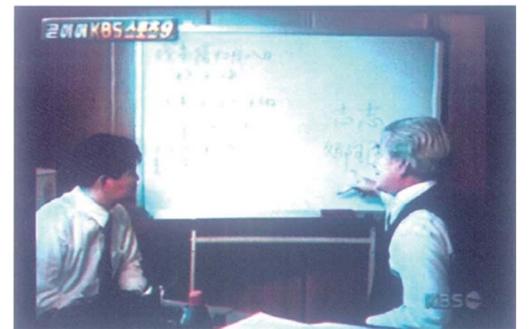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